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21702519

박종욱

目次

01

개요와 역사

02

선출과 권한

03

정부수반 집무실
(거처)

04

총리대신과 관련
된 사건, 사고

05

역대 내각총리대
신

1. 개요와 역사

개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의 정부수반이자, 내각의 대표자이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당대표가 지명된다.

일본의 사실상 국군인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며, 타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치안출동 및 경호출동명령 역시 도도부현의 장의 요청에 따라 총리가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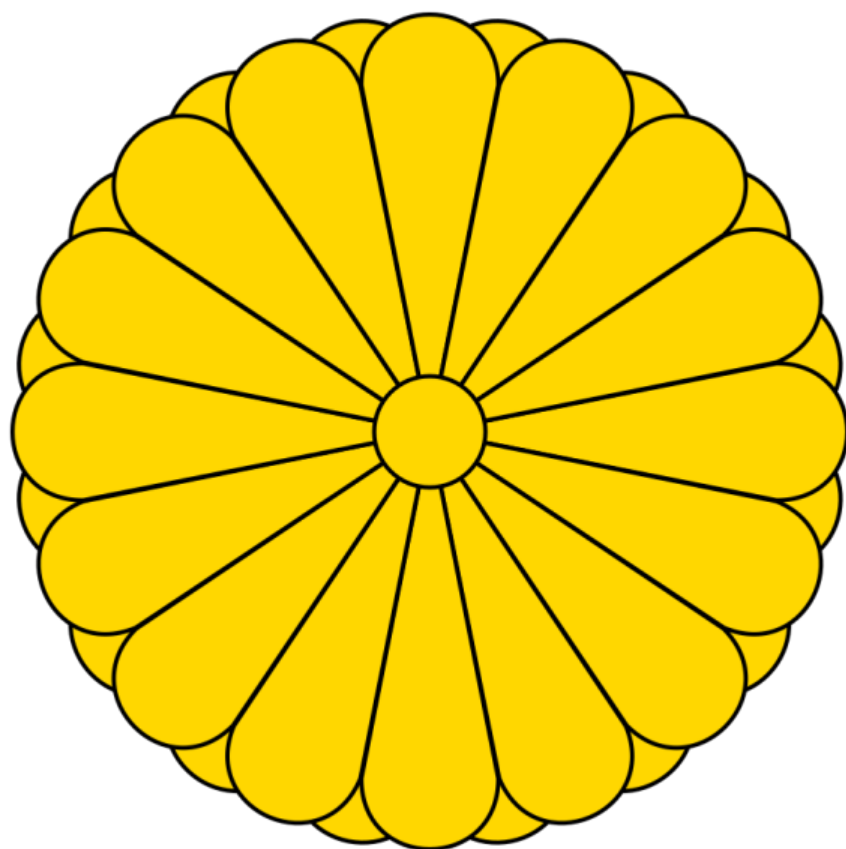
개요

일본국 정부의 인장



내각총리대신의 문장





태정관

근대에 이르러 메이지 유신을 거친 직후 일본은 나라 시대에 제정된, 태정대신(太政大臣), 좌대신(左大臣), 우대신(右大臣) 등으로 이루어진 '태정관 제도'를 살려 정부조직을 구성함.

이후 1885년에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근대적인 내각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각 제도와 내각 총리대신이 나타나고 1889년에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확립하게 됨.

임명은 천황이 하며 선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메이지 초기에서 쇼와 초기까지는 원로(元老)의 추천에 따라서 임명되었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중의원에서 제1정당의 대표가 추천을 받아 임명되기도 했음.

쇼와 초기에서 일제 패망까지는 '중신회의'(重臣會議)에서 추천되었음.

이 무렵 총리의 실권은 약간 미묘했는데, 제국 헌법에는 내각이나 내각 총리대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은 "다른 국무 대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석대신으로서 천황을 보필하는 존재"이며, 내각은 각 대신의 협의와 의사통일을 위한 조직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의사통일을 한다고 한들, 총리는 각 대신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으며 대신을 파면할 수 없고, 설득이나 사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음.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음.

2. 선출과 권한

전후 일본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
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음.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대표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
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함.

국회 양원의 투표로 총리후보를 지명한 뒤 천황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

일반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됨.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상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음.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총리와 국무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1973년 정부 견해에 따르면, 옛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자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킴.



2024.11.11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행정부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의전서열 10위이다.

입법권(국회)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참의원 의장, 중의원 의장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만 그 때문에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정부 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함.

행정권(내각)

일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국무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은 이론적으로 모든 국무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국무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一人内閣)을 만들 수 있음.

행정권(내각)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에는 각료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아니었음.

총리와 각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각내 불일치) 총리가 반대 각료를 설득하거나 사임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음.

그마저도 실패하면 그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헌정의 상도(憲政の常道)였다.

행정권(내각)

중의원에 대해서 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음.

일본국 헌법 제7조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천황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황은 역시나 형식적인 것이고, 내각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각료회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

행정권(내각)



일본의 경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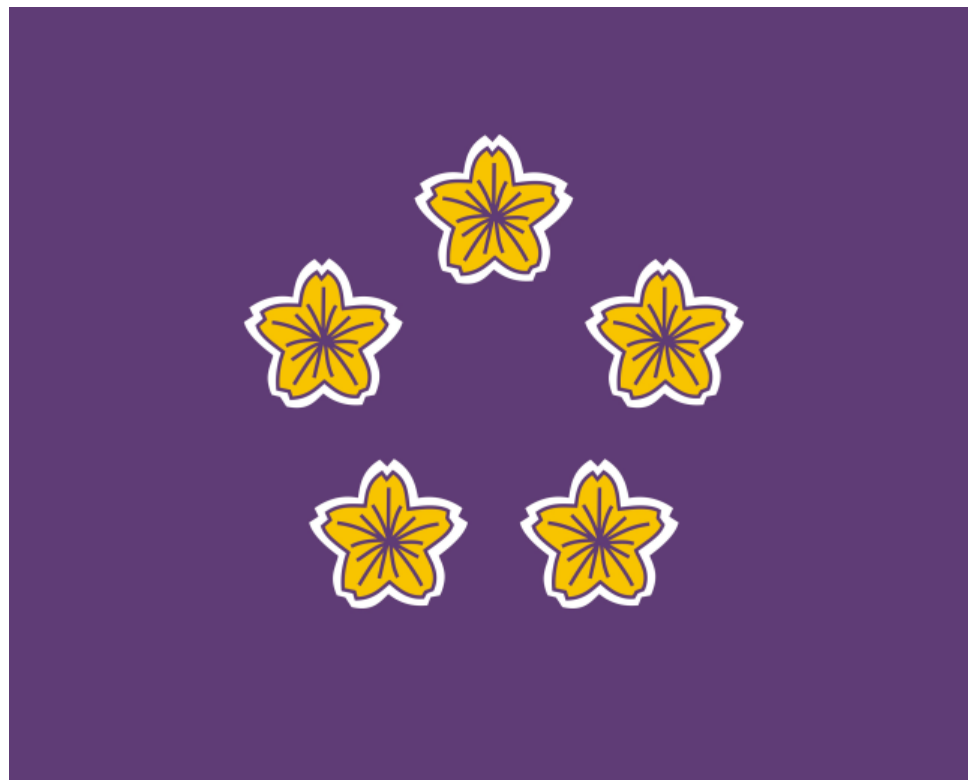
일본 경찰은 중앙의 경찰청과 도쿄의 경시청 및 도쿄도를 제외한 각 도부현 경찰본부로 분할되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이다.

총리는 일본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국가공안위원장 임명권을 이용,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을 통한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음.

일본 경찰청- 특별소속
경시청 및 각 도부현 경찰본부 - 지방소속

권한

통수권(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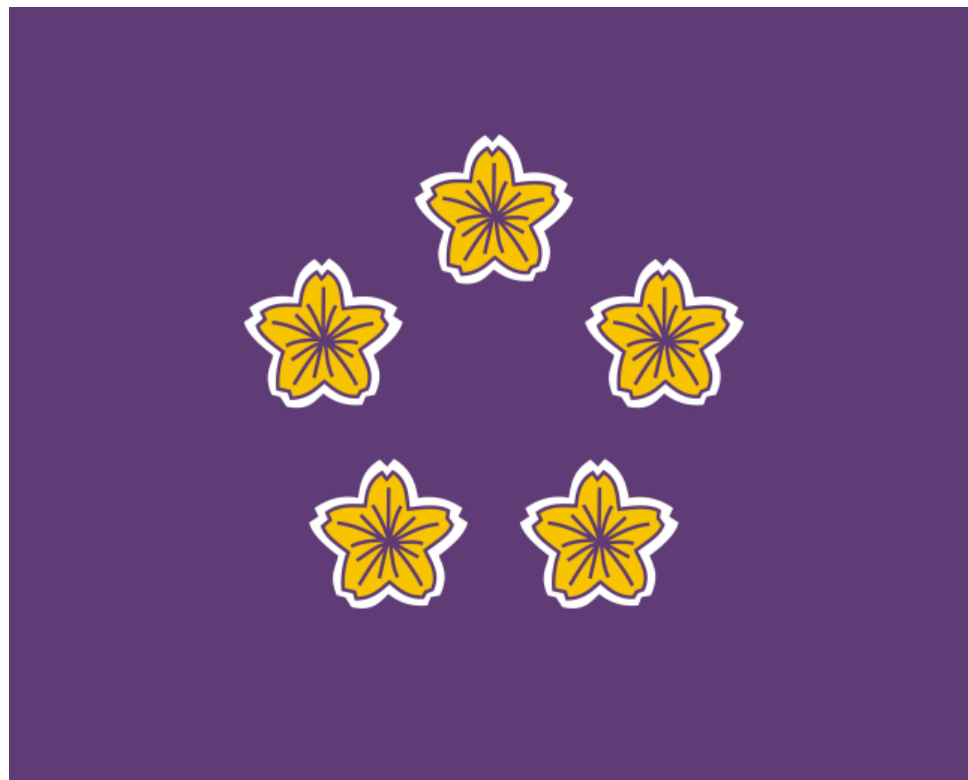
자위대 내각총리대신 깃발

내각총리대신은 막강한 권한인 자위대(自衛隊)의 통수권을 지닌다. 이를 최고지휘감독권(最高指揮監督權)이라고 함.

사실상 군 최고통수권자이기에 총리의 깃발은 벚꽃 5개로 군부 계급인 별로 치면 최고 사령관인 원수의 계급이 된다.

권한

통수권(군권)



자위대 내각총리대신 깃발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 일본군의 통수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음.

패전 후 일본은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군사령부 군정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 군대의 보유 자체를 금지당함.

자위권 차원의 군대가 아닌 자위대의 보유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천황의 자위대에 대한 통수권도 부정되었다.

정보부

내각총리대신이 이끄는 일본국가정보회의는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며. 자위대와의 정보공유 관계가 매우 조밀하게 운영되고 있음.

- >내각정보회의
- >합동정보회의
- >내각정보조사실
- >국제정보통괄관조직
- >공안조사청

3. 정부수반 집무실 (거처)

정부수반 집무실



내각총리대신관저 로고



금색 고시치노키리 문장

정부수반 집무실

역사: 1929년 3월 18일 (구 관저)

2002년 4월 22일 (신 관저)

기능: 내각총리대신 관저
내각총리대신 집무실 등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2초메 3-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二丁目3番1号)

근무인원: 약 450명



2002년 신축한 수상관저의 외관

4. 총리대신과 관련 된 사건, 사고

총리대신과 관련된 사건, 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다룬 민족기록화
(박영선작)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제국 하얼빈
의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출신 안중근
이 일본 제국 초대 내각총리대신,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추밀원 의장, 초대 한
국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
으로 사살한 사건.

총리대신과 관련된 사건, 사고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충격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2022년 7월 8일 11시 32분경,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급조 총기로 암살당한 사건.

총리대신과 관련된 사건, 사고



폭탄 테러 시도 후 긴급 체포된 용의자

2023년 4월 15일 11시 30분경, 일본 와카야마현 제1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찾아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괴한이 사제 폭탄 테러를 감행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건.

총리대신과 관련된 사건, 사고

시청각 자료

아베 신조 피격 사건 발생 10분 후 긴급
속보로 송출된 NHK 종합 텔레비전의
당시 보도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 암살 관련
닛폰 테레비의 사건 보도